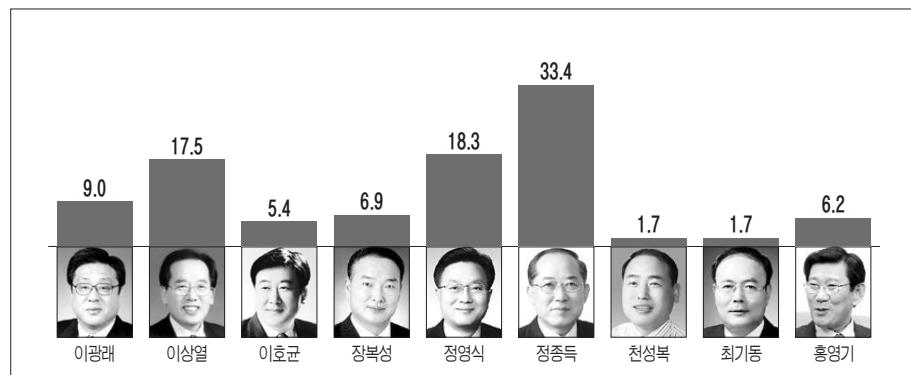


단위: 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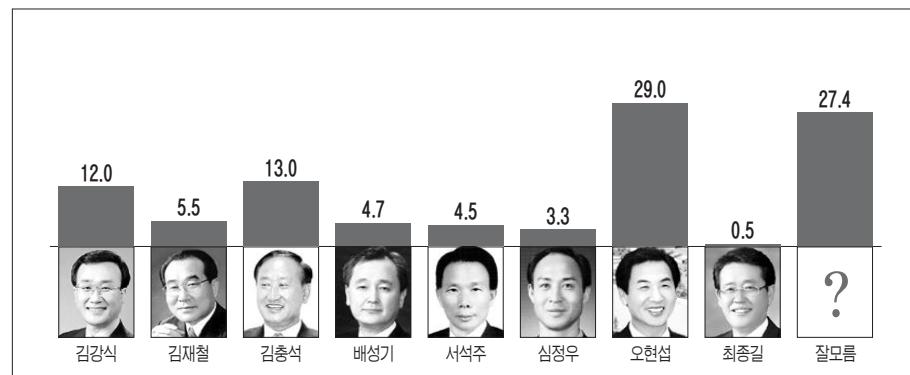
정종득 33.4% 1위...정영식·이상열 추격

목포시장

목포시는 정종득 현 목포시장의 3선 도전에 정영식 전 행정자치부 차관과 이상열 전 의원이 맞서는 '1강 2중' 구도를 보이고 있다.

이번 조사에서 정 시장은 33.4%의 지지를 보이며 앞서 있고, 정 전 차관은 18.3%, 이 전 의원은 17.5%로 뒤를 헤고 있다.

이어 이광재 전 목포시의회 의장(9.0%),

**현직 강세 뚜렷**

'현직 프리미엄'을 등에 업은 현직 단체장들이 전남지역 모든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.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이른바 '무주공산'인 함평과 진도는 물밀 경쟁이 치열하다.

함평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당시 무소속 이석형 군수의 아성을 넘지 못한 안병호 전 함평축협 조합장이 1위를 차지했다. 진도는 박연수 전 군수가 사퇴하면서 입지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CEO 경력을 앞세워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.

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일태 영암군수와 박우랑 신안군수가 각각 43.1%의 지지율을 차지,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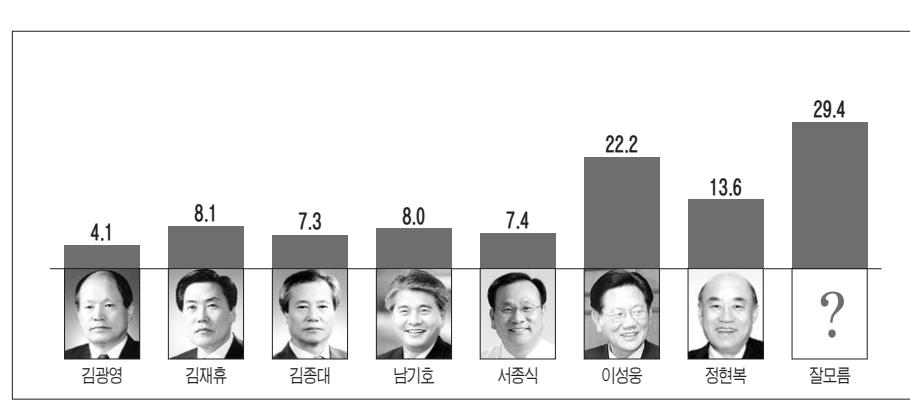
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'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'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. 특히 담양(75.0%)과 함평(75.0%), 완도(73.6%), 고흥(70.8%)은 민주당 후보 지지도가 70%를 넘겼다.

오현섭 우세 속 김충석·김강식 뒤쫓아**여수시장**

6월 2일 지방선거 당선자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치르게 된다. 여수엑스포를 성공 개최한다면 전국 스타 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된다. 그런 만큼 경쟁이 뜨겁다.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만 10여명에 달하고 있다.

오현섭 현 여수시장이 29.0%로 1위를 차지했다. 그 뒤를 김충석 전 여수시장(13.0%)과 김강식 남해안발전연구소 이사장(12.0%)이 차지했다.

0%)이 추격하는 형국이다. 재선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전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, 여기에 지난 선거에서 박방의 접전을 펼쳤던 김 이사장과의 리턴매치도 관심사다. 김재철 여수재향군인회장(5.5%), 배성기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(4.7%), 서석주 전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(4.5%), 심정우 한나리당 여수를 당협위원장(3.3%), 최종길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(0.5%)도 각축전에 뛰어들었다.

**노관규 독주속 이 은·조보훈 부상****순천시장**

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 순천만 세계화에 성공한 노관규 현 순천시장이 33.8%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.

노 시장의 재선을 저지하겠다며 이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(13.2%)이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한번 베르고 있다. 조보훈 전 전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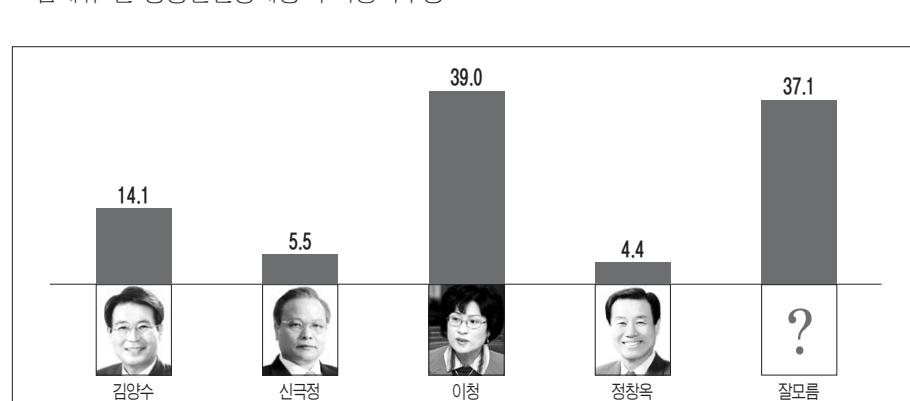
이성웅 아성에 정현복·김재희 등 도전장**광양시장**

이성웅 현 광양시장의 3선 성공 여부가 관전 포인트, 이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에 탄탄한 조직, 무난한 시정 운영 등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율(22.2%)을 보이고 있다.

이 시장은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고, 정 전 부시장은 40~50대 장년층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(8.1%), 남기호 전 남도의원(8.0%), 서종식 변호사(7.4%), 김종대 광양시민포럼 대표(7.3%)도 민주당 공천을 위해 뛰고 있다. 한나리당에서는 김광영 전 군교수(4.1%)가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.

이 시장은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고, 정 전 부시장은 40~50대 장년층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*최형식·유창종 양강구도 형성****담양군수**

이정섭 전 군수가 수회 협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. 이에 따라 최형식 전 담양군수(32.7%)와 유창종 전 담양부군수(21.7%)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경쟁하고 있다.

여기에 송범근 전 남도의원(11.7%)과 강종문 전 남도의원(7.6%), 최화삼 담양군의

무소속 현 군수와 민주 후보 대결 양상**장성군수**

무소속 이청 현 장성군수와 민주당 후보 간 대결이 예상된다. 이에 따라 이 군수에 맞설 민주당 후보 경선에 관심이 쏟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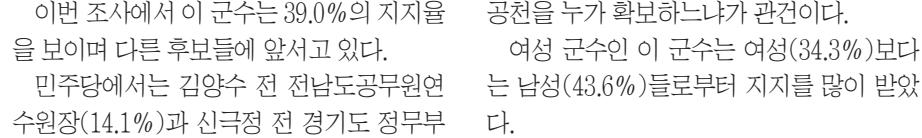
이번 조사에서 이 군수는 39.0%의 지지를 보이며 다른 후보들에 앞서고 있다.

민주당에서는 김양수 전 전남도 공무원연수원장(14.1%)과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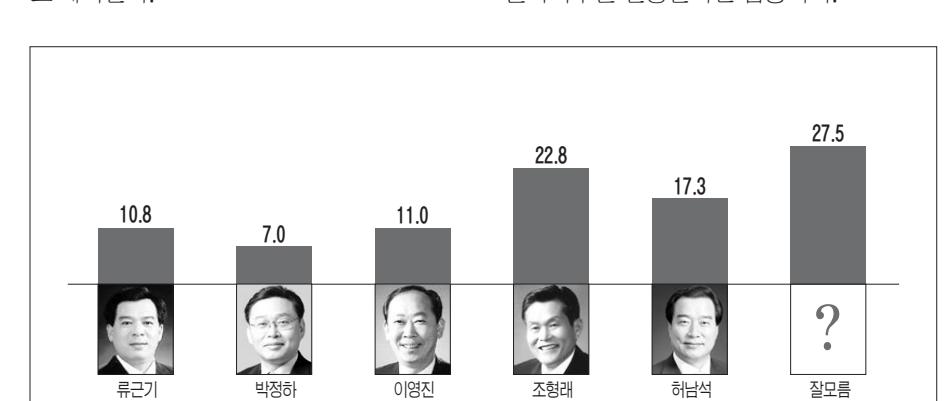
지사(5.5%), 정창옥 전 남도의원(4.4%)이 공천 경쟁에 나서고 있다.

그러나 응답자 중 27.2%가 '잘 모르겠다'고 답했고, 정당 후보 중 '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'는 답변이 49.9%에 달해 민주당 공천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.

여성 군수인 이 군수는 여성(34.3%)보다는 남성(43.6%)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다.

**신정훈 현 시장 대법 판결이 최대 변수****나주시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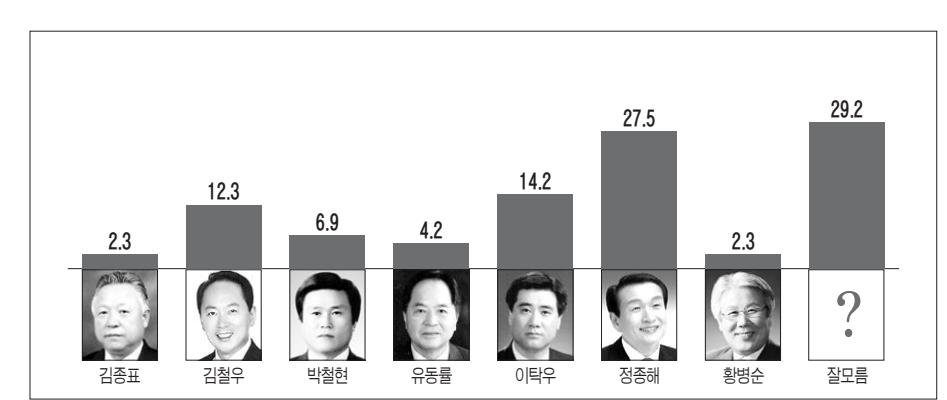
김대동 전 나주시장(15.2%)과 강인규 나주시의회 의장(12.8%)이 중간그룹을 형성하며 신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. 임정훈 위택 인스루먼트 대표(5.9%), 이길선 전 나주 시의회 의장(5.6%), 허석태 전 남도 건설방 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3선 가도는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.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을 땐 '무주공산'이 돼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예측된다.

**조형래 현 군수에 허남석 바짝 추격****곡성군수**

근기 전 남도의원(10.8%), 박정하 곡성신문 대표(7.0%)는 '곡성 토박이'를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.

조 군수는 여성(31.3%)과 40대(31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, 허 전 서장은 남성(26.4%)과 연령층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높았다.

이영진 전 곡성군의회 의장(11.0%)과류

**정종해 현 군수 민주 재공천 여부 주목****보성군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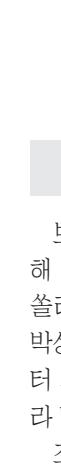
위를 달리고 있고, 이탁우 전 남도의원(14.2%), 김철우 보성군의회 의장(12.3%)이 종위권에서 정 군수를 압박하고 있다. 여기에 박철현 전 광주시도시공사 사장(6.9%), 유동률 전 남도의원(2.3%), 김종표 성균관 유도회 전 남본부 회장(2.3%)도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.

조사 결과, 정 군수가 지지율 27.5%로 1

박병종·진종근·김학영 1강 2중 구도**고흥군수**

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고흥에서는 박병종 현 고흥군수가 31.1%의 지지율을 보이며 한발 앞서고 있다. 이어 진종근 전 고흥군수가 16.7%,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이 14.2%를 차지, 1강 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.

이어 장철우 변호사(6.2%), 장인식 전 국

**예측불허 3각 구도...치열한 예선 예고****구례군수**

구례는 예측불허의 '3각 구도'가 형성되고 있다. 재선을 노리는 서기동 현 구례군수가 27.8%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, 전경태 전 군수 20.5%, 박인환 전 남도의회 의장이 18.0%의 지지율을 보이며 치열한 3파전이 전개되고 있다.

이들 모두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

